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1.20(금) ~ 2023.01.26(목)

제공일시 2023 02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1.20(금) ~ 2023.01.26(목)

제공일시 2023 02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폴란드 '전자폐기물 재활용' 투자 확대...韓 기업과 경쟁 가열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유럽연합(EU) 역내 기업의 폴란드 전자폐기물(e-waste) 재활용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EBRD는 최근 유럽연합(EU) 배터리 얼라이언스 소속 엘리멘탈(Elemental)이 추진하는 폴란드 전자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에 총 1억2700만유로를 지원하여 EBRD 자금을 폴란드 남부 자비에르치에 구축하는 신규 재활용 시설에 집중 투자할 예정임
- 엘리멘탈은 EBRD 자금 지원에 이어 EU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불리는 CRMA까지 시행되면, EU 유럽 역내 장악력을 강화하고 제3 대륙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이는 역외 국가에서 수입해온 전기차용 희귀 금속을 역내에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이를 통해 유럽 폐배터리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 기업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자신문, 2023.01.24) 이준희 기자

2. 미 에너지부, 바이오연료 프로젝트에 118만달러 배정

- 미 에너지부가 바이오연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음
- 농무부는 농업폐기물, 콩기름, 동물성지방을 포함한 바이오매스로 만들 수 있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17개 프로젝트에 1억1800만달러를 지급함
- 에너지부는 지난 2년간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기계 연구개발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입한 바 있으며, 이 기금을 통한 50만달러부터 8000만달러에 이르는 대학 및 민간기업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수백만 갤런의 저탄소 연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저탄소의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를 포함한 항공기 산업을 포함,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연료가 필요함을 설명해왔음

(Reuters, 2023.01.27) Stephanie Kelly 기자

3. 보조금 지원체계 완비한 美 수소부문, “2023년 이후 크게 성장할 것”

- 미국 수소부문이 세계 최대 규모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획득하게 되면서, 2023년 이후에도 신규 투자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을 통해 6~10개의 청정수소 지역 허브 개발에 80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수소의 탄소 집약도에 따라 수소 생산자에게 최소 \$60/kg에서 최대 \$3/kg의 세액 공제를 제공함
- 가장 최근에는 Air Products와 AES Corp.이 합작투자를 통해 텍사스주 북부에 40억달러 규모의 청정 수소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함

(인더스트리뉴스, 2023.01.25) 정한교 기자

1. ECB, 기후 리스크 추적 위한 새로운 통계지표 발표

- 유럽중앙은행은 금융섹터의 기후 관련 리스크를 분석하고 지속가능 금융시장의 진척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련의 통계지표를 발표했음
- 새로운 데이터세트는 지속가능한 금융, 자금조달 배출, 물리적 기후리스크가 대출 및 채권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등 3가지 영역을 다룰 예정임
-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대한 ECB의 지표는 홍수, 산불 또는 폭풍과 같은 자연 재해가 대출, 채권 및 주식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CB는 사용된 데이터 및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중앙은행과 협력할 것이며 EU 기후 공개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ESG Today, 2023.01.24) Mark Segal 기자
(ECB 자료)

2. 英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3800억 물린 보험사들

- 세계 최대 규모의 영국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약 3800억원을 투자한 국내 보험사들이 원금의 최소 30%를 날릴 위기에 처했음
- 이번 프로젝트는 연평균 생산 용량 299MW로, 바이오매스 발전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기조에 부합하는 데다 국내 건설사 삼성물산이 시공에 참여하면서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음
- 국내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시공 컨소시엄에 참여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에 참여했지만, 상업 가동 시기가 예상보다 4년가량 지연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투자자들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삼성물산 등 시공 컨소시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한경코리아마켓, 2023.01.26) 이동훈 기자

3. 재생농업에 눈 돌리는 글로벌 패션·식품기업

- KOTRA 김동그라미 미국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이 재생농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87억달러로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14% 성장해 16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음
- 재생농업은 면화나 곡물 의존도가 높은 패션·식품 브랜드들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파타고니아는 2030년까지 100% 재생농업으로 생산한 면화 사용 목표를 발표하고, 신발과 양말을 생산하는 패션 브랜드 올버드도 2025년까지 신발 제조에 사용하는 울을 재생농업으로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식품 기업 네슬레는 재생 농법을 활용해 코코아를 재배하는 서아프리카 지역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생농업 방식을 시도할 곡물과 시리얼, 커피 농가를 모집 중에 있음
- 김 무역관은 식품, 패션 산업 분야의 우리 공급망 기업들은 바이어의 재생농업 관심과 공급망의 탄소 감축 규정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음

(KOTRA해외시장뉴스, 2023.01.25)
김동그라미 뉴욕무역관

1. 축산 탄소배출 저감 효과 ‘해조류’…미래 먹거리로도 ‘블루오션’

-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해조류 사료 개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음
- 경남연구원 채동렬·신동철 연구위원은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해조류 사료 개발 동향과 경남의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프(G-Brief)에서 경남 연안에 분포한 해조류는 메탄 저감 효과가 우수한 사료첨가제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이에 해조류를 이용한 탄소저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으며, 축산동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 기능을 가진 해조류 원료의 사료첨가제 개발을 제안함
- 2021년도에 발간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수산업 탄소보조금 지원 범위에 저탄소·저메탄 배합사료 개발 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하는 등 이런 정책 지원으로 현장에서는 해조류 사료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노컷뉴스, 2023.01.23) 최호영 기자

2. K-택소노미에 ‘무공해차 금융서비스’ 포함…금융사 ‘안도’

-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 빠졌던 ‘금융서비스’가 최근 발표된 개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면서 금융사들이 안도했음
-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한 대출, 투자, 구매, 리스(대여), 할부 등 금융서비스’를 녹색경제활동임을 명시한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갔음
- 이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금융서비스를 위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란 기대감 높아졌음

(머니투데이, 2023.01.20) 박광범 기자

3. 630조원 시장 잡아라…세계는 지금 SMR ‘춘추전국시대’ [김진원의 머니볼]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화석연료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대형 원전 대비 안전하면서도 유연하게 발전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임
- 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80종 이상의 SMR 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며, 세계 SMR 시장은 2035년 6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임

(한국경제, 2023.01.24) 김진원 기자

4. 커지는 미국 배터리 재활용 시장, 한국도 대비해야

- 미국 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 기업도 폐배터리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023년에도 여전히 뜨거운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시장’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공급망, 국가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가 늘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도 현지 시장 진출 기회가 있는데, 폐배터리를 미국 현지에서 재활용하면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임
- 보고서는 ‘한국 기업도 구형 전기차 모델의 수명이 다해가는 시점을 미리 대비하고 제대로 된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음

(산업일보, 2023.01.22) 김인환 기자

1. 한화솔루션, 美 MS와 ‘태양광 동맹’...“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 한화솔루션은 MS와 친환경 에너지 확산·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음
- 한화솔루션은 올해부터 MS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태양광 발전소에 2.5기가와트(GW) 이상의 모듈을 순차 공급할 계획임
-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조달·시공(EPC)도 한화솔루션이 담당함 이처럼 글로벌 대형 정보통신 기술(ICT) 기업이 태양광 기업과 직접 협업을 통해 대규모 재생 에너지를 조달하는 것은 업계 최초임
- 한화솔루션은 이번 협약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산)’ 제품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의 조기 안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연합뉴스, 2023.01.26) 장하나 기자

2. LS전선, 네덜란드 해상풍력단지용 첫 해저케이블 설치

- LS전선과 벨기에 해저 준설·매립 전문 기업 안데놀(Jan De Nul)그룹이 네덜란드 해상풍력단지용 첫 해저케이블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
- 이번에 깬 해저케이블은 길이가 60km 이상으로, LS전선이 수주한 210km 중 약 28%를 설치한 셈이며, LS전선과 안데놀은 남은 해저케이블 설치도 완료하고 유럽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5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300GW로 키우겠다고 선언하여 유럽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며 해저케이블 시장도 커질 전망이다기 때문임
- LS전선은 2012년 영국 해상풍력단지를 계기로 2013년 덴마크, 2016년 벨기에 등에 중소 규모의 해저케이블 15~30km를 공급하며 성과를 올렸으며, 지난달에는 영국 북해 뱅가드 풍력발전단지에 4000억원 규모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급 사업도 수주했음

(더구루, 2023.01.26) 오소영 기자

3. 테슬라, 美네바다주 배터리공장 신설 등에 4.4조 투자/ 영국 배터리 스타트업 브리티시 볼트는 파산

-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는 24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리노 인근에 전기차 배터리·전기트럭 ‘세미’ 생산시설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36억달러(약 4조4천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음
-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새 배터리 공장은 신형 리튬이온 배터리인 4680 배터리를 연간 20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함
- 또 세미 생산공장도 건설한다고 밝혔으나, 세미 생산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테슬라는 이들 새 생산시설에서 모두 3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 반면, 영국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배터리 스타트업 브리티시 볼트는 추가 자금조달과 특허권 등의 이슈에 밀려 결국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호주 배터리 회사(Recharge Industries)가 브리티시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음

(연합뉴스, 2023.01.25) 임상수 기자

(파이낸셜타임즈, 2023.01.25) Nic Fildes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1.20(금) ~ 2023.01.26(목)

제공일시 2023 02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영국 CMA, 소비재까지 그린워싱 조사 나서.. 토탈은 그린워싱으로 공식 기소

- 영국 경쟁시장국(CMA)이 식품, 음료, 세면도구 등 소비재의 그린워싱을 선제 조사하겠다고 밝힘. '지속가능(sustainable)' 또는 '환경에 더 좋은(better for the environment)'과 같은 라벨이 붙은 제품이 친환경이라며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임
- CMA는 지난 26일 식음료, 청소용품, 세면도구 등 일용소비재(FMCG) 시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그린워싱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소비재 시장에서 그린워싱 단속이 시작되면, 유니레버, 네슬레, 코카콜라, P&G 등 글로벌 대기업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됨
- CMA는 소비재 기업이 기후에 민감한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을 과장하고 있다고 봄. 소비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요가 많은 필수 제품만큼 친환경 마케팅이 과열돼 있다는 것임. 특히 녹색 프리미엄으로 그린워싱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봄
- 그럼에도 소비재 시장에서 친환경 마케팅은 활발함. 유제품 기업 업필드(Upfield)는 자사 제품에 '카본 라벨'을 붙이고, 자사의 식물성 마가린이 타 유제품에 비해 70% 적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음. 토지 사용량과 물 사용량도 50% 적다고 주장함
- CMA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그린워싱 주장이 제기된다면 기업이 영국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그린워싱의 범주에는 ▲증거 없이 제품에 '지속가능' 또는 '환경에 더 좋은' 같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 ▲마케팅에 모호하고 광범위한 친환경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 ▲제품에 재활용 또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얼마나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지속가능하다'고 잘못 브랜드화 된 경우가 포함됨
- CMA는 친환경 마케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힘. 만약 그린워싱을 시사하는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등 강제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고 함
- 한편 세계 7대 메이저 정유사 중 하나인 토탈 에너지스(TotalEnergies)를 프랑스 검찰이 그린워싱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고 유엔리브를 비롯한 복수의 외신이 1월 30일(현지시각) 보도함. 토탈 에너지스가 수년간 환경 NGO의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린워싱과 관련해 정식 기소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수사전문매체 미디어파르트는 밝힘
- 이번 사건은 2020년 10월 환경 NGO 와일드 리걸(Wild Legal), 시 셰퍼드 프랑스(Sea Shepherd France), 다윈 클라이맥스 연합(Darwin Climax Coalitions) 3곳이 심각한 대기 오염과 그린워싱에 대형 정유사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시작됨
- 2022년 봄, 동일한 NGO들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환경 훼손을 언급하는 프랑스 법에 최근 추가된 이른바 "에코사이드(ecocide, 환경대학살)" 관행을 이유로 소송을 추가함. 또 다른 NGO는 지난 2020년 1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라"며, 토탈 에너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뉴욕시와 파리시도 소송에 동참함
- 토탈 에너지스는 성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제 궤도에 도달했으며, 그린워싱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대응함. 토탈 에너지스는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로 변모하고자 지난해 토탈 에너지로 회사명을 바꾸었으며, 트위터에 해시태그 "#MoreEnergies" 등을 만들어 기후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지를 홍보함

(인팩트온, 2023.2.1) 홍명표 기자

(인팩트온, 2023.1.30) 박지영 기자

- 그러나 환경 NGO들은 “화석연료를 생산, 판매하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토탈 에너지의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국민들의 행동과 생각을 오도해 유럽 불공정 소비자 행동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최근, 토탈 에너지는 우간다와 탄자니아 사이의 논란이 많은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로 인해 심한 비난을 받고 있음. 유럽 의회 의원들은 2022년 9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채택함
- 2021년 지구환경변화 저널은 미국의 라이벌인 엑손 모빌과 함께 1970년대에 토탈 에너지가 "화석연료 추출 활동이 지구온난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함
-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기후 선언이 공개되면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기후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비영리 모니터링 단체 CDP는 지난달 "기후 관련 소송을 공시한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힘